

## 근대 여성기독교인의 영성형성과정 연구 : 황에스터와 어윤희를 중심으로\*

김희영(장로회신학대학교/객원교수)

gloria1009@naver.com

---

### 한글 초록

본 글은 근대 여성기독교인의 영성형성과정을 황에스터와 어윤희를 중심으로 연구한 글이다. 먼저 기독교 영성의 개념을 맥그래스(McGrath)의 정의 “기독교 영성은 진정으로 의미 있는 그리스도인의 존재에 대한 탐구이며, 기독교의 근본적인 개념들을 함께 묶어주어 삶과 연관시키는 것으로 기독교 신앙의 범위와 규범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총체적인 경험이다”로 보며 ‘그리스도인의 존재’와 ‘총체적인 경험’에 초점을 두어 그리스도인의 존재됨은 제자됨으로, 총체적인 경험은 그 범위를 시민사회로 확장하여 시민됨으로 범주화하였다. 이를 황에스터와 어윤희의 생애사를 통해 이들 여성의 영성을 제자됨과 시민됨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여성의 제자됨과 시민됨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참된 제자됨은 바른 시민됨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 《 주제어 》

근대 여성, 기독교, 영성, 황에스터, 어윤희

---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B5A07107120)

## I. 들어가는 말

한국 근대의 역사는 우리나라의 주권이 상실된 암흑의 시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시기는 여성들에게는 여성운동이 일어나고, 여성의 계몽과 교육이 일어나기 시작한 때이기도 하다. 특별히 여성은 봉건적 사회 질서 속에서 남성들에게 의존해서 삶을 살았고, 생활세계에 머무르며 공적인 영역에서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여성들의 독립운동에서 보듯이 여성들은 사회, 문화적인 한계를 초월하여 민족을 위해 투쟁하고 교육함으로써 여성의 지도력을 발휘하였다. 특별히 3·1 운동 이후 파리강화회의나 워싱턴 회의에서 민족의 독립에 대하여 좌절하게 되었을 때에도 여성들은 계몽운동을 이어가며 민족 독립의 기틀을 마련해갔다.

어떻게 여성들이 가부장적인 사회적 한계에서 벗어나서 독립운동에 앞장설 수 있었을까. 개화의식이나 민족적인 위기 등 많은 이유가 있겠다. 연구자는 특별히 기독교 선교사들이 전해준 기독교 신앙에 초점을 두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 여성의 교육이 이뤄진 곳도, 여성의 독립운동이 일어난 곳도 바로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진 학교와 교회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기독교적 여성교육에 대하여는 사경회를 통한 기독교 여성교육(조은하, 2007)과 최용신의 농촌계몽운동에 대한 기독교교육이 있다(조은하, 2014). 한국 최초의 기독교교육학자의 사상과 실천에 관한 논문과(양금희, 2015), 기독교 여성과 기독교적 여성교육에 관한(김현숙, 2019) 학술논문이 있다. 이러한 연구가 여성 기독교인들을 위한 기독교교육에 깊은 함의점을 제공해 주었다. 그러나 여성의 내면을 조명하거나 여성 영성형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그러나 근대 여성기독교인의 영성을 연구하면 여성이 하나님과 삶의 다양한 경험 안에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자기를 객관화하며, 타자를 향해 나아가고, 신적인 능력으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영성이란 무엇인가. 17세기 프랑스에서 영성이라는 말이 활발하

게 사용되어 긍정적인 면에서는 정의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기도 하였고, 부정적으로는 열광주의자들과 정적주의자들을 조롱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이러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헌신’, ‘완덕’이라는 용어로 영적인 삶을 표현하기도 하였고, 복음주의자들은 ‘경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유해룡, 2007, 21-23). 1912년-15년에 출간된 『가톨릭 백과사전』에는 ‘영성’이라는 항목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1970년판 『새 가톨릭 백과사전』에는 8개의 항목에 걸쳐 ‘영성’을 언급하였다. 이를 통해 영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영성의 개념이 폭넓게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유해룡, 2007, 23-24). 영성은 신앙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어떠한 정신, 혹은 누구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의미로도 폭넓게 사용되었다(최윤배, 2015, 1).

맥그래스는 기독교 영성은 “진정으로 의미 있는 그리스도인의 존재에 대한 탐구이며, 기독교의 근본적인 개념들을 함께 묶어주어 삶과 연관시키는 것으로 기독교 신앙의 범위와 규범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총체적인 경험이다(McGrath, 2006, 34).”고 하였다. 영성의 삶의 양식과 경험은 ‘그리스도인의 존재’와 관계가 있고, 기독교의 신앙과 신념이 근본적인 개념을 묶어주어 신앙이 곧 삶으로 이어지게 하는 ‘총체적인 경험’이 된다는 것이다. 매쿼리는 영성의 특징을 자기초월로 보며 이러한 능력으로 자기 자신을 형성하고, 자유, 창조성, 자기비판, 책임, 선의 추구, 공동체 형성, 사랑의 봉사 등의 풍부함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Macquarrie, 2000, 66-67). 한계상황을 넘어서고, 삶을 통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바로 영성의 ‘자기초월적인’ 특징이 일상적인 ‘자유, 창조성, 선의 추구, 공동체 형성, 사랑의 봉사’등의 삶과 연속성을 가지며 일상의 삶을 이뤄나간다는 것이다. 맥그래스나 매쿼리에게 있어 영성은 삶의 경험, 일상의 삶의 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러한 경험은 삶의 환경 안에서 표현된다.

그런데 기독교인의 삶의 장은 사적인 공간뿐 아니라 공적인 위치, 시민 사회도 포함된다. 이러한 점에서 기독교 영성은 시민이 되어가는 것을 포함

하며 시민됨과 관계가 있다. 또한 맥그래스의 영성의 정의에서 나온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되는 것은 신앙의 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으로 제자됨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기독교 영성은 기독교 신앙의 범주 안에서 경험되는 그리스도인의 존재됨, 즉 제자됨과 경험되는 시민사회의 범주 안에 속하는 시민됨으로 구현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버나드 맥긴(McGinn, 2003, 10)은 “기독교 영성이란 기독교 신앙을 삶 속에서 일반적인 형태로, 또는 보다 특수화된 형태로 실제로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 영성이란 인간의 삶과 경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영성은 ‘믿음’ 자체라기보다는, 믿음이 일으키는 반응에 집중하며, 하나님과의 직접적이고 분명한 관계를 다룬다는 것이다(McGinn, 2003, 10). 영성을 연구할 때에는 한 개인의 믿음의 반응과 하나님 경험이라는 주관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세계 영성대전(The Classics of Western Spirituality)도 세계 영성가들 전집(A Library of the Great Spiritual Masters)을 편찬할 때 생애사(Autobiography)를 중심으로 전개하거나, 계시(Showings), 저작들을 수록하고 있다. 영성은 각 개인마다 다르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원리나 원칙이 있기보다는 독특하고 고유하게 형성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독교 영성을 맥긴(McGinn, 2003, 10)과 매쿼리, 맥그래스의 것에 기초하여 믿음에 대한 반응과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안에서의 경험에 초점을 두고 황에스터와 어윤희의 영성을 생애사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특별히 ‘제자됨’과 ‘시민됨’에 초점을 두며 각 개인의 신앙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경험되고 구현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시민됨은 근대 사회의 시민이 되는 것을 뜻한다. 정치적 관점에서 시민은 민주주의적 자치를 통치의 기본질서로 하는 특정한 정치공동체에서 그 공동체가 보장하는 모든 권리를 완전하고도 평등하게 향유하는 개별 구성원을 가리킨다(문학비평용어사전). 시기적으로 본다면 시민은 근대 이후 사회에서 그 사회의 중심을 이루는 구성원을 말한다(다음 백과). 사전적인 의미로 ‘시민’은 국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나라 헌법에 의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자유민을 말한다(네이버 국어사전). 이러한 점에서 '시민'은 근대사회 이후의 구성원으로 '민주주의적 자치'가 이뤄지고 참정권을 가지며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다. 손호근은 봉건질서와 지배층에 반기를 들었던 동학혁명, 갑오개혁의 시기에 근대의 시민이 탄생 되었다고 보며(손호근, 2013; 윤석준, 120에서 재인용), 정상호는 그 시기를 1980년대의 민주화운동으로 본다(정상호, 2013, 219; 윤석준, 120에서 재인용). '근대적 시민 정신'을 가졌느냐, '도시 주민'이냐, '참정권을 가진 자'이냐에 따라 '시민'의 정의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본 글에서는 통상적으로 근대로 보는 개항 이후부터 1945년 8월 일제로부터 해방될 때까지의 시기에 살았던 구성원으로 자유와 민주주의적 참정권의 정신을 가지며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는 이들을 '시민'으로 보고자 한다.

황에스터는 김마리아와 함께 일본에서 2·8 독립선언을 주도하며, 3·1운동에 영향을 준 일본과 미국에서 유학을 한 엘리트이다. 그녀는 심훈의 수록수의 모델인 최용신을 가르쳤던 감리교신학교 교수였다. 어윤희는 전도부인 출신으로 미리흠(Mary Helm)여학교와 호수돈(Holson)여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개성의 만세운동을 선도하였다. 이들은 한국의 여성사와 근대사의 한 획을 그은 여성으로 18세에 순국한 유관순과는 다르게 80년이라는 긴 삶을 살아왔다. 이들은 모두 일제 강점기와 해방, 한국전쟁, 전후 사회 재건 등 다양한 삶의 환경에서 영성을 형성하며 한국의 역사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이들의 영성을 연구하면 삶의 여정 가운데서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영적인 문제로 보고 믿음의 반응을 하였는지, 하나님과 직접적이고 분명한 관계를 가졌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여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됨을 이루고 시대 상황에서 믿음으로 응답하며 시민됨을 구현했는지 볼 수 있을 것이다.

황에스터에 관한 자료는 황에스터의 글(황애덕, 1931, 1946)과 유고집(황애덕, 1972a, 1972b, 1972c, 1972d, 1972e)에 내적인 심리가 잘 나타난다. 자신의 삶의 이야기와 감옥에서의 경험들, 그리고 3·1 운동에 대한 회상들

을 잘 서술했다. 그녀의 전기는 박화성의 전기(서정자, 2004)에 잘 나와 있는데 어린 시절부터 1963년 당시까지의 이야기와 가족과 지인들의 황에스터에 대한 추억담과 소회가 있어서 생생한 목격담을 들을 수 있다. 직접 황에스터와 교제를 하였던 최은희 기자의 글(최은희, 1991d)에도 그녀의 삶의 이야기와 경험들이 나와 있다.

어윤희는 직접 저술한 글이 없으나 장병욱의 『한국감리교 여성사』에 기독교 여성으로서 그녀의 체험과 활동이 나와 있으며, 추영수의 『구원의 횃불』에서 기독교인, 독립운동가, 사회사업가로서 잘 기술하였다. 이순자의 “떠난 자리가 아름다운 고아들의 어머니, 어윤희”는 역사적인 사료에 근거하여 잘 조명해 주었다. 어윤희의 지인 이채욱(1962)의 글, 김홍성(1969)의 글도 어윤희의 생애를 간략하지만,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을 잘 기술해 주었다.

본 연구는 황에스터와 어윤희와 관련된 기사와 1, 2차 자료,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문헌연구를 하고자 한다. 각기 다른 사료에서 나온 서로 다른 기록은 저자가 직접 저술한 개인적인 글과 공적인 비문이나 판결문을 기준으로 하고자 한다.

## II. 근대 여성기독교인의 영성형성의 특징

‘제자’가 우선이나 ‘시민’이 우선이냐. 이는 기독교가 사사화된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고민이 될 것이다. 근대 초기의 여성의 삶은 ‘제자’도 아니었고, 유교적 가부장제 하에서 ‘시민’도 아니었다. 이러한 시대에서 황에스터와 어윤희가 영성형성을 통해 어떻게 제자됨과 시민됨을 이루어갔는지 살펴보고자 하겠다.

## 1. 황에스터의 생애와 영적체험

### 1) 기독교의 문화화와 각성

황에스터는 1892년 4월 19일 평양 외성에서 부친 황석청과 모친 홍유례 사이의 2남 6녀 중 넷째 딸로 출생했다. 그의 어머니가 여섯 째 딸 신덕을 낳고 사흘 동안 후산을 못하고 생명이 위태하게 되었다(최은희, 1991d, 180). 이때 홀 의사가 순조롭게 후산을 할 수 있게 하여 이것을 인연으로 온 집안이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최은희, 1991d, 180). 황에스터의 어머니 홍여사는 홀의사의 요청으로 전도사가 되었고, 가족은 평양 성내로 이사 왔다. 황에스터는 여성소학교인 정진소학교에 입학하였다. 그녀는 정진소학교 당시 일본인이 남문(南門)을 허는 것을 보고 분개하며 미워하게 되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니고 봉사한 황에스터는 정진소학교에서 성경을 배우고 기독교 신앙을 습득하였다. 이는 황에스터의 아버지가 서양인 교장에게 보낸 편지글에서 볼 수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와 또한 그의 유명한 제자들의 교훈과 진리가 적혀 있는 성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오묘하고 깊은 이치를 잘 해설하여서 그 철리(哲理)를 깨달을 수 있도록 뜻을 가르치려 하지 않고 기계와 같이 외우도록만 하면 결국 아동들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주님의 말씀을 많이 가르치는 일도 좋은 일이오나, 좀 더 신학문의 시간을 늘리시는 것도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정자 편, 2004, 252).

황에스터는 온 가족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기독교 학교에서 공부를 함으로써 가정과 학교,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게 되었다. 황에스터에게 제자됨은 가정과 교회와 학교의 지지와 가르침 속에서 이뤄졌으며, 그녀는 가정과 교회와 학교의 문화 안에서 제자됨을 실천할 수 있었다.

## 2) 기독교 학교와 독립운동

황에스터는 1907년 5월 졸업 후(최은희, 1991d, 180) 그해 가을부터 평양 경창문 안에 있는 송의여중을 다녔다. 그러나 이후 이화학당에서 공부하는 학생을 보고 서울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서 부모님을 졸라서 1908년 이화여중 3학년에 입학하였다. 이화여중에서 3, 4학년을 다니고 졸업할 때는 한일합방이 일어났던 1910년이였다(황애덕, 1972b, 183; 이화100년사편찬위원회, 1994a, 188). 황에스터는 18세 밖에 안 되었지만 나라를 지키지 못하는 어른들과 조상들이 원망스러웠다. 그리고 ‘봐라! 나는 내 손으로 국권을 회복할 것이며 잃어버린 태극기를 들고 나가리라!’고 생각했다(황애덕, 1972b, 184). 1907년은 평양대부흥운동이 일어난 시기이다. 황에스터의 전기와 유고집에는 평양대부흥운동에 관한 기록이 없었으나 그녀가 1907년 5월에 평양의 정진소학교를 졸업하고 그 해 가을에 송의여중에 다녔다는 것을 볼 때, 평양의 학생들 사이에 부흥운동이 일어나 송실·송덕·광성중학교와 송의여중에 확산된 것을 볼 때(김인수, 2004, 252; Baird, 1907, 66-67) 황에스터도 이러한 부흥의 현장을 목도하거나 경험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화학당도 1904년경부터 전국적으로 일기 시작한 부흥회의 영향을 받아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된 후 조신성 선생의 지도로 매일 정해진 시간에 수업을 중단하고 구국기도회를 가졌다(이화100년사편찬위원회, 1994b, 96). 밤 집회에서 학생들이 죄의 고백과 울음과 기도로써 새벽 2시까지 기도실에 있었다고 하였다(이화100년사편찬위원회, 1994a, 94). 또한 송의학교 교과목과 이화여중 교과목에 성경교과목이 있었다(송의100년사 편찬위원회, 2003, 90; 이화100년사편찬위원회, 1994a, 75-76). 이를 통해 황에스터는 학교에서 성경교육을 받았고, 기독교적인 분위기 안에서 영적인 각성을 하였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 여성들이 학교라는 사회적 공간으로 이동하였을 때, 민족의식을 형성할 수 있었으며, 주체적인 여성으로 형성되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김현숙, 2019, 24). 학교를 통해 ‘제자됨’은 ‘여성 제자됨’으로 이동하면서 작은 사회인 학교에서 시민됨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황에스터는 이화여중을 졸업한 후 “부모님과 국가를 위해서 아들노릇을 해야 하겠습니다.”고 정훈했던 약속을 깨뜨리고 송의여중에서 교편을 잡았다. 그녀는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건져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일을 위해서 동지를 규합하고자 비밀을 엄수하고, 생사를 함께 할 사람, 겨레를 위하는 애국지성이 강한 사람으로 1913년에 송죽결사대를 조직하였다(황애덕, 1972b, 184-185). 송죽결사대는 밤 12시 학교 지하실에서 모였다. 그들은 모이면 조국의 국권을 회복할 능력을 주십시오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한 후에 자아 반성과 서로의 비판으로 행동과 생활의 정화를 강조하였다. “우리들은 기왕에 이 나라의 여성으로 태어났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성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나라의 독립이 속히 실현되도록 힘써 보려는 것입니다. 주님이시여! 이일에 축복을 아끼지 마옵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지혜를 더욱 부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유지를 찾아가거나 떡을 팔고 수를 놓아 모이는 돈, 회비로 독립자금을 조달하였으며, 졸업 후 각 지방에 흩어져서도 그들의 사명을 잊지 않았다(추영수, 1971, 43-44). 그녀의 여성관은 이미 당시 사회·문화적인 관습을 뛰어넘어서 ‘아들’과 같이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었다. 또한 그녀는 참된 시민으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깨닫고 제자됨과 시민됨을 분리하지 않았다. 시민사회와의 소통으로 성찰을 하여 자신의 내면을 풍부하게 하였고, 자신의 부족한 모습도 건강하게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다(김도일, 2019, 74).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지혜를 얻은 후, 그것으로 민족독립에 힘을 다하는, 제자됨으로 시민됨을 실천하고, 시민됨으로 제자됨을 성취한 것이었다.

황에스터는 흠 의사의 권유로 일본 동경여자의학전문학교에 유학하여 2년 만에 중퇴했는데 그 때가 1919년이었다. 그녀는 2·8 독립선언에 참여하여 동경 경시청에 연행되었다가 밤중에 풀려났다. 황에스터는 2·8 독립선언 준비에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과 만나서 논의하려고 하지 않자 “여러분! 국

가의 대사를 남자들만이 하겠다는 겁니까? 수레바퀴는 혼자서 달리지 못합니다.”고 연설하여 함께 이루었다(서정자 편, 2004, 283-284). 그녀는 파리 강화회의에 우리 여성을 대표로 파견해야 한다는 생각에 일본여자로 변장하여 2월 20일에 서울에 잠복하여 송죽 결사대 동지들에게 연락하였다. 그녀는 저녁마다 모여 3·1 운동을 준비하였는데 원래는 뒤에서 일하라고 당부를 받았으나 오전에 흥분과 열의에 주체할 수 없어서 가슴에 품고 태극기를 가지고 파고다 공원으로 갔다. 황에스터는 ‘그때 나의 터질듯 한 감회와 열정-목에서 피가 터져 나올 것만 같고 그림던 태극기를 보며 독립을 외친다는 사실에 너무도 감격하며 눈물이 비 오듯 하여 걸음을 걸을 수 없었다.’고 하였다(황애덕, 1972c, 193).

### 3) 어두운 밤과 새로운 소명

그녀는 독립운동으로 인하여 3월 19일에 잡혀서 8월 가석방되어 풀려났다. 이후 10월 대한민국 애국부인회를 조직하였다. 그러나 한 회원의 밀고로 1919년 12월 28일에 전국 각지에서 검거가 되어서 대구 감옥으로 이송되었다. 황에스터가 지정받은 감방은 절도범들이 있는 곳이었다. 그녀는 절도범들에게 등을 대고 돌아앉아 일주일 동안 먹지도 않고 울기만 했다. 자신이 감옥에 있는 동안 고문으로 인해 돌아가신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학업을 다 마치지 못하였으며, 단체가 미연에 발견되어 성공도 못한 채 잡히고 말았으니 기막히고 억울했던 것이다. 그녀는 밥도 먹지 않고 분하고 원통한 마음에 밤낮으로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했다(서정자 편, 2004, 278-296).

하나님이시여! 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삼천리 내 강산을 다시 찾으려고 투쟁한 것이 어째서 죄가 된다 하십니까? 자비하신 하나님이신데 무슨 까닭으로 우리에게 이런 형벌을 주십니까?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황에스터가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부르짖고 하는데 비몽사몽간에 하늘에서 평형(平衡)의 저울대가 주르르 내려왔다. 그 하나는 ‘나라에 몸을 바쳐서 일을 하다가 죽는다.’는 저울추요, 다른 하나는 ‘죄수들을 위하여 봉사한다.’는 무게의 저울추인데, 이 두 개의 추가 꼭 같이 평형을 이루어서 한동안 에스터의 눈앞에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 비몽사몽간에 소리가 있는 것 같았다. “네가 나라에 몸을 바치고 동포를 취하여 일하겠다고 한다면, 지금 네 주위에 있는 동포만큼 가련한 동족들이 어디 또 있겠느냐?” 엄연히 힐책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황에스터는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 오만하고 교만함을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구하심이라.’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절도범에게로 돌아왔다. 바로 전까지도 흥악스럽게 보이던 그들의 얼굴이 가엾게 보였다(서정자 편, 2004, 296-297). 감옥에 있는 동안 죄수들과 지내며 그들에게 성경과 한글을 가르치니 즐거움으로 감옥 생활 4년을 위안과 보람으로 보내었고, 죄수들도 ‘선생님, 선생님’ 하며 따랐다(황애덕, 1931, 49, 1972c, 195).

이전의 황에스터의 ‘동포’의 개념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같이 일제 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여러 동지와 독립투사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 동포의 범주를 가련하고 무지한 죄수에게까지 확장시키는 것이었다. 이에 황에스터는 자신의 오만과 교만을 회개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의 부족함을 깨우쳐 주셔서 구해주심에 감사하고 절도범을 향하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과 한글, 바른 사상을 가르쳐 주어서 그들의 행실이 변화되도록 하였다. 그들이 감옥을 나섰을 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쳤던 것이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에서 그녀는 하나님께 나아갔고, 그곳에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며, 타인을 제자로 부르며, 시민이 되게 하였다.

감옥은 더위와 추위가 심하며, 빈대와 모기가 많아 다른 죄수들은 밤에 자기 어려웠으나, 황에스터는 단잠을 잤다. 그 이유는 꿈마다 묵시록에 적힌 대로의 천당에 올라가 황금 문에 드나들면서 천사들과 어울려 노래하며 즐기다가 기상신호에 눈을 뜨는 낙원생활을 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감옥

에 있는 동안 고통을 거의 감각 못하고 감사로 일관하였다. ‘하나님이시여 감사합니다. 낮이면 죄수로서 인간의 고뇌를 맛보게 하시고, 밤이면 천당 가족의 일원으로 불러주사 영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서정자 편, 2004, 301).

이러한 감옥에서의 봉사과 섬김으로 황에스터가 출소할 때는 죄수들이 목을 놓아 울었다. 그렇기에 황에스터는 자신의 꽃다운 청춘을 감옥에서 보낸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직 감옥에 남아있는 사람은 없겠지만 대구형무소를 한 번 찾아보고 싶다고 고백했다(황에덕, 1931, 49, 1972c, 195). 어두운 밤과 같이 희망도 없는 감옥에서 그녀는 소명을 발견하고 이루어졌던 것이다.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경험은 그녀로 시공간이 제한된 감옥 가운데에서 시공간을 초월한 천국낙원의 경험을 하게 하였다. 또한 더 이상 제자됨과 시민됨을 실천할 수 없는 곳에서 죄수들을 가르치고 선도하여 타인들을 제자와 시민으로 세우도록 하였다.

#### 4) 미국 유학과 민족과 하나님 경험, 귀국

황에스터는 출옥한 후 이화학당 대학부 3학년에 편입하여 공부하였다. 그리고 모교의 사감 겸 4학년(이화여중)의 담임을 맡게 되었다. 학생들을 가르치며 밤마다 태화 여자관에 여공들을 모아 글을 가르쳤다(서정자 편, 2004, 309). 이후 황에스터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첫째로는 미국이 얼마나 문명한 나라인가를 보고자 함이요, 둘째는 일본의 통치하에 너무나 꼴불견이 많아서 독립할 때까지 돌아오지 않겠다는 마음에서 그리하였다(서정자 편, 2004, 317). 그러나 한국 땅에서 배가 떨어져 산천이 아득히 멀어질수록 마음이 더욱 한국 땅에 매달려 애착됨을 느꼈다. 왜적에게 유린된 조국 땅이 보기 싫고 더 머물 수 없는 심정이었으나 막상 땅이 시야에서 멀어질수록 자신의 마음은 이 땅에 착 달라붙어 떠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사람이 자기 몸을 버릴 수 없고 잊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내 나라, 내 조

국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원리인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내가 이 땅의 정기를 받아 태어나고, 이 땅의 물을 마시고, 이 땅의 토산을 먹고, 이 강산의 바람을 흡입하고 살아왔으니만큼, '나'라는 존재가 이 땅의 한 부분이고 이 땅이 내 심신의 원천인 만큼 나와 내 조국은 한 몸이요, 한 덩어리이기 때문이다. 조국의 운명이 곧 나의 운명이고, 조국이 짓밟혔을 때 나 또한 밟혀 숨막혔던 것이다. 내 조국과 내가 어찌 떠날 수 있으며 나 어찌 조국을 사랑하지 않고 생존할 수 있으리요. 그런즉 내가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즉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 (중략) ... 나라를 사랑한다, 민족을 위한다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사랑한다는 말은 내 모든 것을 바친다는 뜻일 것이다...그리하여 우리는 왜 적의 총칼 앞에서 목숨을 내걸고 조국을 위하여 용감히 싸웠던 것이며 수많은 우리 선열들이 생명을 이 나라를 위하여 바쳤던 것이다(황애덕, 1972a, 189-190).

황에스터는 나라가 일본에 의해 짓밟혀서 떠나려고 하였지만, 강산이 멀어질수록 오히려 애착이 강해졌다고 고백했다. 그것은 황에스터에게 '나'라는 존재와 '국가'는 한 몸이기에 그렇다. 그리고 그녀는 나라를 위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고 이는 목숨을 바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황에스터는 1925년 여름에 미국에 도착하여 직업을 구하기 위해 학교에 적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이민국에서 학교에 입학하지 않으면 귀국해야 한다고 연락을 주었다. 그리하여 그녀가 학비마련을 위해 직업을 구하러 다니는 중에 기독교절제회의 스크랜톤 지방 재무부 책임자인 쉬얼즈 부인을 소개받아 절제회 간부회의에서 한국의 모든 문제에 관하여 열변을 토하였다. 황에스터가 감옥의 이야기를 할 때 모두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고, 만장일치로 도와주기로 결정하였다. 쉬얼즈 부인은 매달 60불의 현금과 아침식사로 계란·우유·과일 등을 2년간 송달해 주었다(최은희, 1991d, 188). 황에스터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고 고백하였다. 이후 콜럼비아대학 교육학

부에서 석사학위를 따고 평소부터 농촌 사업에 뜻을 두고 있어서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의 농과에서 5개월 청강을 하고 1928년 6월에 고국으로 돌아왔다(서정자 편, 2004, 331-333). 하나님은 아무도 없는 곳과 같은 곳에서 기독교 절제회를 통해 황에스터가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 하셨다.

고국에 돌아온 에스터의 학력과 인격은 뛰어났지만 일제 치하에서는 교원으로 선발될 수 없어서 감리교신학교 교장의 양해로 농촌 사업 지도교육과를 특설하여 지도교수가 되었다. 그녀는 농촌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김도득과 최용신(상록수 모델) 등과 함께 농촌운동에 힘을 썼다. 이는 황에스터가 귀국하기 전 미국의 한 젊은 여인이 가장 유익한 일에 쓰라고 백달러를 헌금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황에스터는 이 돈으로 농촌사업을 시작하여 그 결과를 쉬얼즈 부인에게 보내었다. 그러자 쉬얼즈 부인이 에스터 서클을 조직하여 처음에는 매달 10불씩, 그 후에는 25불씩 태평양전쟁으로 통신이 끊어질 때까지 14년간 계속 지원했다(최은희, 1991d, 188). 한 미국 여성의 헌신을 통해 한국의 열악한 농촌의 환경이 개선되었고, 농촌에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비추어졌다. 에스터는 1930년에 박순씨의 요청으로 결혼을 하였고 간단하게 부군과 함께 만주로 향했다. 그곳에서 동포가 빈약한 시설 아래에서 농노에 불과한 삶을 사는 것을 보고 분개하며 계몽사업을 하고 경성현농장을 시작하여 농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해 헌신하다가 2차 대전이 발발하여 삼년 만에 귀국하였다(서정자 편, 2004, 349-351). 이후 박순씨의 두 아들과 강보에 싸인 아들을 맞이하여 우리나라의 국민으로 떳떳하게 내세우고자 교육에 힘을 썼다(서정자 편, 2004, 354).

##### 5) 해방이후의 활동

황에스터는 1945년 8월 15일 해방의 기쁨을 맞이하였고, ‘여성단체총연맹’을 이루어 여성도 국회의원에 피선되도록 하였으나 당선은 되지 않았다. 그녀는 절제운동에 관여하여 1933년 회계, 34년 찬성회원, 후에는 총무로 활약하며 퇴폐풍조추방과 근검절약운동에 앞장섰다. 1949년 4월에 미국여

성단체연합회의 한국 대표로 미국에 가서, 한국여자기독교절제회의 지시로 1950년 5월 영국 에스팅에서 열리는 여자 기독교절제회 세계 대회에 황우순과 참여하였다(서정자 편, 2004, 356-365; 윤혜영, 1997, 72-73). 그 중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동지와 동생이 피살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황에스터는 밤낮으로 울며 동지와 동생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한국으로 가는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역사, 지리, 풍속, 습관, 민정 등을 약 두 달 동안 열심히 가르쳤다. 어려운 위기 앞에서 그녀는 간구하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그녀는 다행히 동지의 피살이 헛소문인 것과 동생이 이북에서 탈출하여 서울에 돌아온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동기와 조카가 사라진 것을 알고 애통해하였다. 1951년 11월 14일에 귀국하여 전 재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기로 하였다. 그 방법은 첫째, 위로부터 내리시는 지혜를 얻고자 더욱 하나님과의 접촉을 가까이 할 것, 둘째, 다수 동지들의 의견을 참작하며 그들과 일체 단결할 것, 셋째, 우리의 환경을 잘 파악하여 가장 적절한 사업을 택할 것, 넷째, 때에 따라서 적당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서정자 편, 2004, 356-393). 민족을 위해 진정한 시민이 되어 봉사하는 것은 위로부터의 하나님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지혜를 통해 시민됨을 이루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그녀의 영적 성장에서 제자됨과 시민됨의 관계는 강한 제자됨이 있을 때 참된 시민됨을 이루고, 가장 효과적인 시민됨을 이룰 때 제자됨을 잘 이룬 것을 알 수 있다. 그녀의 하나님 경험은 일생에 걸쳐 그녀를 제자로서 살게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반응으로서 그녀의 삶은 시민됨을 효과적으로 이루었다. 그녀는 길거리에서 헤매고 있는 전쟁 미망인들을 불러들여 구호품을 나눠주고 일거리를 얻어 미망인들과 부지런히 일하도록 하였다. 이후 한미 기술학원을 설립하여 전재 유가족에게 정신적 위안과 직업적 보도를 목적으로 하고, 여성의 취미와 기능을 발휘하여 자력갱생하도록 하였다(서정자 편, 2004, 405-417). 이후 경기도 부평 자택에서 1971년 8월 24일 서거하였다(최은희, 1991d, 192).

그러면 동시대를 살아오며,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제자됨을 이루었던 어윤희는 어떻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시민됨을 이루었는지, 어윤희의 영성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 2. 어윤희의 생애와 영적체험

### 1) 기독교의 각성과 전도부인의 삶

어윤희는 1878년 6월 30일 충북 충주군 소태면 덕은리 산골에서 어현중의 무남독녀로 태어났다. 부친이 전통 선비이기에 어윤희가 9살이 되면서 한문을 배워 대학(大學)까지 통달하였다(이순자, 2000, 150). 그러나 그녀는 '내 나라 글이 있는데 배우지 않다니'하는 마음을 늘 가지게 되어 이웃집 색시를 찾아가 물레질을 해주면서 국문을 배웠다. 12세에 어머니를 여의고 16세에 얼굴도 모르던 남편과 결혼하였는데, 남편이 3일 만에 동학 의병으로 출전했다가 왜적에 의해 전사하게 되었다. 아버지를 모시고 살던 중 18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혈혈단신이 되었다(추영수, 1971, 110). 어윤희는 모진 세파에 휩쓸리다 30세 되는 해에 우연히 개성북부교회에 나가서 정춘수 전도사(후에 목사)의 설교를 듣고 감화를 받아 기독교인이 되었다(이채욱, 1962, 52; 이순자, 2000, 151). 그러나 그녀는 1910년 한일합병이 일어났을 때 나라 없는 백성은 죽음만 같지 못할 것 같아서 기둥에 머리를 부딪쳐 자결하려고 했다(추영수, 1971, 111).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교회에 가서 기도를 드리려고 앞드리며 하나님께 이 목숨을 받아주시기를 눈물로 열심히 기도하였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 그녀는 죽음으로 이 고통을 잊는 것보다 조그마한 힘으로라도 나라 찾기에 바쳐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나라를 찾기까지 나라 일에 힘이 되고자 하였다. 그녀는 기도하는 가운데 큰 위로를 받았다(추영수, 1971, 111).

어윤희는 처음에 국권상실이라는 '고통(passion)'을 한 개인의 죽음(one's death)으로써 '회피'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녀가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녀에게 국권회복을 위해 ‘열정(passion)’을 다하라고 말씀하셨다. 이 순간이 바로 근대 초기 과부였고,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어윤희가 참된 시민으로 헌신하는 순간이 되었다. 그리하여 이러한 하나님 경험은 그녀로 일생 동안 국권회복을 위해 자신을 바치도록 하였고(self-denial), 시민됨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하였다. 어윤희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었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고 그것이 경험적인 앎이 되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각을 갖고 상황을 바라보며 존재의 변화를 이루었다. 초월자 하나님 경험은 어윤희에게 새로운 견고한 터전이 되었으며, 어윤희로 자신의 삶의 터전인 국가를 되찾기 위해 헌신하게 하였다.

이후 그녀는 1912년 6월 13일에 갬블(F. K. Gamble)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고, 같은 해에 그의 추천으로 미국 남감리교 선교회에서 설립한 미리흠여학교 기예과에 입학하였다(이순자, 2000, 151). 미리흠 여학교는 과부와 기혼여성들을 위해 세워진 학교였다. 그녀는 미리흠 여학교 재학시절 독립운동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으며, 이 학교를 졸업한 후 호수돈 여학교에 들어가 1915년 3월에 졸업하였다(이순자, 2000, 151). 졸업 후 1915년 4월에 전도부인이 되어 개성동부교회에서 목회생활을 시작하였다. 1917년부터는 토산지역에 파송되어 주로 농어촌, 산간벽지의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며 독립정신을 고취시키고, 문맹퇴치에도 주력하였다(이순자, 2000, 151).

어윤희는 한편으로는 전도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전도부인들은 전도와 권서의 역할, 교사의 역할을 하며 집집마다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고 집안 깊숙이 봉건적인 굴레에 갇혀 있던 한국 여성들을 새 삶으로 인도하였다(윤정란, 2003, 43). 기독교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긍정하고 교회에서 전도와 교육을 하면서 스스로 자율적인 주체가 되어, 다른 여성들을 제자로 부르며 그들로 각성하여 제자와 시민이 되도록 한 것이다. 그녀는 무지가 최대의 적(敵)이요, 자멸이라고 믿고 자주

독립은 먼저 배우고 계몽하는 일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장병욱, 1979, 347). 어윤희는 순회와 교사의 일을 하면서 국권회복을 위한 독립사상고취와 배일정신의 고취, 여성 계몽에 주안점을 두었다(윤혜영, 1997, 13). 교회는 어윤희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제자로 부름을 받게 할 뿐 아니라, 전도부인으로 임명하여 다른 여성들을 제자로 부르며 교회에서 여성 지도자로서 헌신하게 하였다. 교회는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에 맞서서 여성으로 자주적인 여성이 되고, 민족 독립을 위해 헌신하도록 훈련하는 장이 되었다.

어윤희는 침실 위쪽 다락방에서 새벽이나 밤중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겨레를 생각하는 마음,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간절했을 때 남모르게 피눈물로 기도하였다. 이러한 기도생활은 남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겨레를 위하여 하였으며, 일하며 활동할 때 외에는 거의 다 기도생활이었다고 한다(추영수, 1971, 111).

## 2) 개성만세운동

그녀는 1919년 개성 성경학교의 사감일을 보고 있었다.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인 오화영 목사는 개성북부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강조원 목사 앞으로 독립선언서를 전달하여 개성에서도 만세운동이 일어나도록 하였다. 그러나 소심한 성격의 강 목사는 독립선언서를 직접 처리하지 못하고 호수돈여학교 신공량을 시켜 북부교회 석탄 창고에 갖다 두도록 하였다. 그 결과 3월 1일 개성에서는 아무 움직임이 없었다(이덕주, 2013, 257). 신공량에게서 독립선언서 이야기를 들은 권애라는 그것을 찾아내 ‘어윤희 전도사라면 이만한 일을 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상급생 최옥순을 통해 어윤희와 의논하였다. 이와 별도로 2월 33인 중 한명인 박희도 전도사의 지시를 받은 안병숙이 개성에 내려와서 호수돈여학교 학생들에게 서울에서 진행되는 독립선언식과 만세운동 계획을 알리고 개성에서도 호응해 줄 것을 부탁하고 갔다. 여학생들은 ‘믿을 수 있는 어머니’ 어윤희를 찾아가 상의했다(이덕주,

2013, 152; 이순자, 2000, 152). 그날 저녁 어윤희는 “오늘 밤 조용히 기도 해 보고 내일 아침 대답하겠다”고 하였다. 그날 밤 어윤희는 개성 북부 예배당 지하실 장작이 쌓인 틈바구니에서 꺼낸 독립 선언서를 놓고 기도로서 그 밤을 지새웠다(최은희, 1991d, 241). 기도 중 그녀는 큰 확신을 얻었다. 3월 2일 그녀는 학생들과 만나 함께 도와줄 것을 약속하고 자신은 선언문을 시내에 배포하는 것과 교인들을 인솔하여 나오기로 하였다(이순자, 2000, 152). 시대적 요구 앞에 그녀가 가장 먼저 행했던 것은 기도였다. 교회의 울타리 안에 있었던 그녀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안에서 확신을 얻어 개성 3·1 운동을 선도하며 공론의 장에 드러나게 되었다. 많은 개성의 기독교인들과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지만, 기도의 어머니 어윤희를 통해 개성의 민족독립운동이 촉발되었던 것이다.

3월 3일, 호수돈여학교 학생들이 시가지로 몰려나오는 것을 신호로 개성 만세운동이 시작되었다. 오후 2시 정각에 어윤희는 선언서를 걸쳐 메고 남문쪽부터 중앙지대로 연설을 하며 올라갔다. 그 뒤를 따르는 교회 부인들과 청년들은 뼈라를 뿌리면서 만세를 불렀다. 이 소식이 삼시간에 퍼지자 천여명의 군중이 대화정 일본인촌으로 쇄도하여, 집 문 앞에 있는 일장기를 모조리 찢어버렸다(이순자, 2000, 152-153). 어윤희는 3월 3일 만세운동을 이끌고 숙소로 돌아와 저녁식사를 하던 중 일본 경찰에 연행되었다. 그녀는 자신을 연행하러 온 형사에게 “당신들이 올 줄 알았소. 잠깐 준비할 것이 있으니 기다리요.”하고 태연히 저녁식사를 하고 솜옷으로 갈아입은 다음 방문을 잠그고 나섰다. 수갑을 손에 든 형사를 향하여 “당신들이 내 몸을 묶어갈망정 내 마음은 못 묶여 가리라.”고 하였다. 경찰서에서 배후관계를 조사받을 때 “새벽이 되면 누가 시켜서 닭이 읊디까? 우리는 독립할 때가 왔으니까 꺾기하는 것이지요”하고 차갑게 쏘아 붙였다(이순자, 2000, 153). 1919년 4월 11일 어윤희와 신관빈은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김승태 편, 2019, 10-11).

### 3) 감옥에서의 삶

어윤희는 당시 서대문 감옥소에서 유관순, 신관빈, 김향화와 한 방에 있었다. 그녀는 나라를 위한다는 일념으로 모인 사람들이 한 뜻으로 정을 이어갔기에 감방생활을 고생으로만 여기지 않았다고 하였다(추영수, 1971, 114). 그녀는 나이가 어리고 장대한 유관순이 항상 식사에 충족치 못함을 보고 금식기도를 이유로 자신의 식사를 유관순에게 제공해 주었다. 그리고 자신은 나라와 유관순을 위해서 금식기도를 하였다. 이에 유관순은 어윤희를 어머니와 같이 생각하여 자신의 흥금을 털어놓고 소회를 말하는 중 자기고향집 가족들의 걱정을 하는 것을 들었다. 어윤희는 잠잠히 듣고 있다가 출감한 즉시 가장 친애하는 조화벽에게 상의를 하였고 조화벽은 자기가 시무하던 학교에 사표를 내고 천안으로 가서 유관순의 가족을 돌봐주다가 추후 유관순의 친 오라버니 유우석이 출옥한 후에 함께 가정을 이루었다(김홍성, 1969, 111).

어윤희가 서대문 감옥에 있었을 때 밥을 날라주던 여자가 있었는데 성격이 포악하며 건방져서 누구나 미워하고, 비밀을 간수에게 고하고 이간질을 하여 투사들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방해하였다. 어느 날 어윤희의 방에 들어와서 동정을 살피며 이상하게 비꼬아서 참다못한 어윤희가 목덜미를 졸라 죽일 양으로 뒤로 목을 감아 당겼다. 놀란 간수가 뛰어와서 겨우 죽음을 면했으나 그 뒤로는 정신을 차리어 그들의 뜻을 알게 되었다. 이후 그녀는 이 신애의 말을 듣고 일본간수의 심부름을 하는 척하면서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쪽지를 이방 저방 전달해 주었다. 그리고 어느 날 밤에 어윤희 앞에 나타나 “전 선생님의 무언의 가르침을 받아 이젠 우리나라의 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알겠어요. 정말 지난번에는 철없이 굴어 죄송했습니다.” 하고 눈물을 글썽거렸다. 어윤희는 전하기를 아무 말 말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동지를 위해 일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위한 도리이며 국민된 의무일 거라고 격려했다(장병욱, 1979, 349-350). 이 여인의 쪽지 전달을 통해 서대문감옥 여감방에서 3·1운동 1주년 되는 날 일제히 만세를 부를 수 있었

다. 이후 이 여성은 만세운동 후에 쪽지가 발각되어 끌려갔고 어윤희는 마음 아파했다(3·1여성동지회 문화부, 1980, 418-419).

어윤희가 3·1 운동으로 감옥에 있는 동안 스코필드가 세브란스 간호사 노경순을 방문하면서 어윤희를 알게 되었다(이순자, 2000, 154). 이를 계기로 스코필드와 12살 연상인 어윤희는 ‘의남매’를 맺어 끊임없이 왕래하였다(김홍성, 1969, 111).

#### 4) 민족의 어머니로서 전도와 교육, 헌신

어윤희는 석방 뒤에 개성북부교회 전도부인으로 다시 시무하는 한편, 지방 순회전도사업을 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독립운동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여러 모양으로 독립운동을 계속하였다(이순자, 2000, 155-156). 그녀가 받은 월급이라고는 좁쌀 소두 5말로 시작해서 돈으로는 5원, 7원, 15원을 받았는데 이 가난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해외 독립운동가들이 찾아왔을 때 방에다 감추고 밥을 지어 잘 대접하였다(이채욱, 1962, 54). 그녀는 상해 임시정부에서 파견되는 밀사들에게 여비를 마련해 주기도 하고 왜경의 눈을 피하도록 골방이며 다락에 감추어 주기도 했다. 탄환은 버선에 넣고, 육혈포는 빈 깡통에 담아 그 위에 헌 종이를 덮어 모래를 두 겹께 펴 담고 조화를 만들어 꽃아 책상 위에 화분을 번갈아 상비함으로써 공급하는 방법을 썼다(3·1여성동지회 문화부, 1980, 419).

어느 날 허술한 차림의 청년 셋이 어윤희의 집의 문을 두드렸다. 이들은 그녀 앞에 쇠몽치와 같은 것을 내놓으며 “우리들은 이번 개성경찰서를 습격하라는 특명을 지니고 왔습니다.”라고 흥분된 어조로 말하였다. 어윤희는 당신들의 뜻은 훌륭하지만 수류탄 몇 개로 큰 성과도 거둘 수 없고, 단지 젊은 목숨을 헛되이 빼앗기게 될 테니 다음의 큰일을 위하여 이번 일만은 그만두면 어떻겠냐고 권고하여 청년들이 거사를 단념하였다(추영수, 1971, 115). 이들은 봉재룡, 백이흥, 김성권인데 어윤희는 봉재룡을 양자로 삼아 일본에 유학을 보내었다. 봉재룡은 학업을 무사히 마친 후 귀국하여 보성여

학교에서 교편을 잡았으며, 이동휘 휘하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전사하였다(이순자, 2000, 156-158). 백이홍은 병란도교회 서당교사로, 김성권은 금천교회 서당교사로 보내주었다. 얼마 후 김성권이 어윤희의 호의에 감사하며 친구에게 믿고 발설한 것이 화근이 되어 금천경찰서 형사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어윤희는 잡히게 되고, 이후 경찰서장에게 말하였다. “내가 무슨 죄 있기에 잡아다 가둔단 말이오. 청년들이 경찰서를 습격하려는 것을 막았으니 선도한 공으로 표창을 해야 옳지, 그래 구속을 하는 것이 말이 되오.”하고 따졌다. 서장도 수감이 갔는지 그녀를 곧 석방하였다. 잡혀왔던 세 청년들도 무죄방면이 되었다(최은희, 1991d, 246-247; 이순자, 2000, 157).

어윤희는 남감리회 여성교회 전국연합회가 1920년 12월 6일에 결성되었을 때 부회장으로 피선되었다. 이 남감리회 여성교회가 1930년 북감리회 여성교회와 연합하여 오늘날의 감리교 여성교회의 전신이 되었다. 그녀는 1923년 개성여성경학교를 졸업하고 1927년 일본 칸사이 지방의 선교사로 임명되었으나 불온사상가라고 일본 당국이 제동을 걸어 일본선교의 꿈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1921년 9월 이후 파송 받은 개성북부교회 전도 부인으로서의 활동은 중단하지 않았다(이순자, 2000, 158-159).

어윤희는 자신에게 주어진 장에서 상황의 요청에 최선을 다하며 살았다. 그렇기에 당시 사회에서 약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녀였지만, 지혜롭게 상황을 다루면서 많은 이들로 민족을 위해 헌신하게 도와주며, 지지하며 힘을 다했던 것이다. 그녀의 제자됨은 한 개인의 제자된 삶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성의 독립운동을 이끌며, 민족의 독립운동에 힘을 실어주는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그녀 자신의 하나님 경험과 영성생활은 개인의 신앙생활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시대적 한계를 뛰어넘는 시민이 되게 하였다.

### 5) 고아들의 할머니

일제 말기에 이르러서는 지나친 왜경의 감시와 성화가 있었다. 이에 어윤희는 이 나라의 주인공이 될 어린이들 중 불쌍한 고아들을 돌봐주는 것도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철호와 오기환과 같이 개성 고려동에 유린보육원을 세웠다(추영수, 1971, 119). 이것이 최초의 보육원이었다. 그녀가 이전에 의식주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의식주를, 안전함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안전한 처소와 보호를, 소속감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지지와 사랑의 실천과 공동체의 경험을 제공한 것처럼, 이제는 고아들을 돌보며 새로운 국가의 새로운 주인공들을 양육하는 일에 매진하였다. 시대와 상황을 바르게 읽고 시대적 요구에 효과적으로 응답하였다. 마치 매슬로우의 욕구이론을 채워주듯이 말이다. 그녀는 왜경의 감시에 좌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며 제자됨과 시민됨을 효과적으로 이루어 나갔다.

해방 후 서울에 옮겨와 마포구 창전동에 유린 보육원을 세웠다. 당시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던 서강교회가 넓은 예배장소를 물색하던 중 어윤희를 찾아가 간청하자 그녀는 보육원의 대청을 주일예배장으로 허락하고 본인도 서강감리교회로 이명하였다. 1952년 서강교회 장로로 피택이 되었고, 서울 수복 후 다시 원아들을 모아 보육원을 운영하였다(이순자, 2000, 161). 스코필드도 보육원을 도우며 가끔씩 오랜 시간 동안 보육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보냈다(정운찬, 2004, 349).

미국에 있는 그의 손녀 봉옥선은 어윤희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

저희 할머니님은 저의 동무들의 할머니와 달라요. 안락의자에 앉아 계시지도 앉으시고 방안에 누워서 낮잠도 주무시지 않으시고 보육원 아이들과 함께 계시어 그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할머니님은 밤에도 편히 주무시지 못하지요. 제일 작은 아이 9명을 한 방에 같이 데리고 쉬시면서 몇 번이고 일어나시어서 아이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 할머니님은 예수님 그대로라고 생각했습니다(추영수, 1971, 119).

그녀는 다락방에서 나라와 겨레, 교회와 보육원 어린이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였다(최은희, 1991d, 248).

어윤희는 11월 18일 85세에 돌아가셨다. 그녀는 운명하던 날 스코필드 박사를 방문하고 임경란의 생일잔치에 참여하였다(최은희, 1991d, 248-249). 교우들이 물러가고 반시간쯤 지나 이상한 증세가 보이므로 의사의 왕진을 청하였다. 응급 치료를 받게 하고 송병휘가 모시고 유린보육원으로 돌아가는 자동차 안에서 임종을 보게 되었다(최은희, 1991d, 249-250). 별세 후, 사람들은 평소에 그녀가 일러둔 말씀대로 장 속을 열어보았더니 흰 주머니에는 교회의 헌금으로 2만원, 검정 주머니에는 장례비로 4만원이 들어 있었고, 부족하면 팔아 쓰라는 금반지 세 개와 수의, 색신발, 관의 길이와 높이를 잰 척수, 관 덮을 보위에 두를 백무궁화 견본까지 있었다. 시체는 화장하고 가루는 한강에 띄워달라는 유서와 함께 뱃사까지도 준비되어 있었다. 1961년 11월 22일 5일 장으로 교회, 보육원, 여성단체 등 천여 명의 조객이 모인 가운데 엄숙히 영결식을 거행하였다(최은희, 1991d, 249-250).

### 3. 황에스터와 어윤희의 영성의 특징 비교

#### 1) 황에스터와 어윤희 영성에서 나타난 제자됨과 시민됨

근대 초기의 여성은 제자도 아니고 시민도 아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근대 초기의 두 여성 황에스터와 어윤희를 제자로 부르시고 시민이 되게 하셨다. 어윤희는 전도부인으로 개성북부교회와 여러 곳에서 전도와 교육활동을 하며 개성 만세운동을 촉발하였다. 황에스터는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시민됨을 이루었다. 이들이 개인적, 시대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의 반응을 하며 영성을 형성했는지 앞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황에스터의 제자됨과 시민됨

| 황에스터            |                        |                   |   |                                 |                |
|-----------------|------------------------|-------------------|---|---------------------------------|----------------|
| 생애사             | 상황                     |                   | 믿음의 반응                                  |                                 | 강조점            |
| 시기              | 개인적 상황                 | 민족적 상황            | 제자됨                                     | 시민됨                             |                |
| 기독교 문화화         | 기독교복음 (닥터홀) 교회생활 정진소학교 | 일제침략              |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의 제자                   | (일제가 남문을 허는 것을 보며) 한국시민으로 각성    | 제자됨            |
| 기독교 학교와 독립운동    | 기독교여학교 공동체 송죽결사대조직     | 한일합방              | 기독교 여성 공동체에서의 기도와 예배, 교육                | 민족의 독립을 위해 힘쓰는 여성               | 시민됨            |
| 어두운 밤과 새로운 소명   | 감옥생활                   | 독립투사 투옥           | 하나님을 경험하며 복음과 교육으로 제자됨 실천               | 새로운 시민양성, 시민교육                  | 제자됨과 시민됨의 새 개념 |
| 미국유학과 하나님 경험 귀국 | 미국유학 협성대 교수            | 국권상실              | 미국교회에서 신앙생활/스크랜튼 여성 제자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은혜 경험 | 조국과 일치됨 경험 소외된 계층을 위한 시민됨(농촌운동) | 시민됨            |
| 해방이후            | 여성단체총연맹 기독교절제회 전재민구호   | 해방 남한정부 수립 6.25전쟁 |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제자                   | 새로운 사회를 위해 준비하는 시민 전재민 구호, 교육   | 제자됨을 통해 시민됨 실천 |

황에스터와 어윤희 모두 개인적이고 민족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제자됨과 시민됨을 이룬 것을 볼 수 있다. 이들의 제자됨과 시민됨은 신앙과 시대의 요청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었는데 때로는 제자됨이, 때로는 시민됨이 강조된 것을 볼 수 있다. 제자로 각성하다가 시민됨을 이루었고, 다시 새롭게 제자됨과 시민됨을 이루어간 것을 볼 수 있다.

〈표 2〉 어윤희의 제자됨과 시민됨

| 어윤희                  |                |                          |                           |                              |                |
|----------------------|----------------|--------------------------|---------------------------|------------------------------|----------------|
| 생애사                  | 상황             |                          | 믿음의 반응                    |                              | 강조점            |
| 시기                   | 개인적 상황         | 민족적 상황                   | 제자됨                       | 시민됨                          |                |
| 기독교에 각성, 전도부인        | 개성북부 교회 교인, 회심 | 한일합방                     | 전도부인으로 복음전파               | 다른 여성들 교육 민족독립을 위해 헌신하는 시민   | 제자됨            |
| 개성 만세운동              | 개성에서 독립선언서 배부  | 3·1 운동 개성에서는 만세운동을 하지 않음 | 하나님께 기도하고 확신하여 독립선언서를 배부  | 개성만세운동 촉발 독립의식 고취            | 제자됨에서 시민됨으로    |
| 감옥에서의 삶              | 감옥에 있음         | 독립투사 투옥                  | 타인을 위해 기도와 나눔             | 다른 죄수들을 선도 3·1운동 1주년 기념 만세운동 | 제자됨, 시민됨 강조    |
| 민족의 어머니로서 전도와 교육, 헌신 | 전도부인 독립투사 조력   | 국내외 독립운동                 | 지인과 국가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 전도    | 독립투사 도움                      | 제자됨을 통해 시민됨 실천 |
| 고아들의 할머니             | 고아원 설립         | 일제의 감시, 탄압, 6.25         | 하나님께 예배하며 어린이들에게 복음전파, 양육 | 새로운 시민 양성                    | 제자됨 강조, 시민됨    |

## 2) 황에스터와 어윤희의 영성의 특징

앞에서 영성은 삶의 경험, 일상의 삶의 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러한 경험은 삶의 환경 안에서 표현된다고 보았다(McGrath, 2006, 34; Macquarrie, 2000, 66-67). 기독교인의 삶의 장은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점에서 ‘시민됨’과 관계가 있으며,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되는 것은 ‘제자됨’으로 나타난다고 보고 이러한 관점에서 황에스터와 어윤희가 어떻게 믿음의 반응으로 제자됨과 시민됨을 이루어갔는지 보았다. 그러면 이들의 영성의 특징이 어떠한지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 (1) 기독교 신앙과 제자됨, 시민됨

황에스터는 어머니가 흠 의사의 도움으로 순조롭게 후산을 하게 되자 온 집안이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 황에스터는 흠의사가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고 한 이야기가 뇌 속에 박혀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가슴에 퍼지고 확장되었다고 하였다(서정자 편, 2004, 237-242). 초월자 하나님에 대한 각성이 흠 선교사와 교회를 통해 일어나면서 삶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향하게 되었다. 이러한 제자됨은 민족적인 위기 앞에서 시민됨을 향하게 하였다. 그녀가 송죽결사대를 조직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여성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하였사오니(추영수, 1971, 43-44).” 라고 기도하며 이후 독립운동과 전후사회 재건에 힘을 다한 것은 초월자 하나님께 각성한 황에스터가 민족적 위기 앞에서 한 여성 주체자로서 수동적·의존적 여성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여성 주체자로 각성하여 나라를 위해 시민됨을 이룬 것이었다.

어윤희는 30세에 우연히 개성북부교회에 나갔다. 이때 정춘수 전도사의 설교에 감화를 받아 기독교인이 되었다. 이후 그녀는 인생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었고, 하나님이 주신 민족에 대한 비전에 따라 살았다. 대소사의 일을 하나님께 간구했고, 일과 활동하는 것 외에는 모두 기도의 삶을 살았다. 전도부인으로 활약하며 다른 여성들을 교육하고, 남성들도 꺼려했던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일을 하였다. 바로 초월자 하나님에 대한 각성을 하였을 때, 자신을 제자로서 인식하고, 여성 주체자로 각성하게 되어서 많은 여성들을 가르치며 전도하고 민족의 독립에 기여하였던 것이다. 당시 사회·문화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여성들은 의존적이고, 수동적이며, 사적인 영역에 자리하였지만 기독교 신앙은 한 개인을 자율적인 주체자가 되어서 인습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공론의 자리에 서며 일제에 맞서 민족 독립에 이바지하게 하였다. 영성형성을 통해 여성은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제자가 될 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일원이 되었다. 그들에게 구원은 내적인 구원뿐 아니라 민족의 구원이며, 하나님은 개인의 해방자가 될 뿐 아니라 민족의 해방자였다. 이

리한 점에서 이들의 여성형성과정은 초월자 하나님에 대한 각성이 제자됨, 여성됨, 시민됨으로 이어졌고, 하나님을 향한 각성이 점차 민족을 향해 수평적인 차원으로 나아간 것을 보게 된다.

## (2) 여성형성의 장으로서 교회와 학교

1910년 일제가 한국을 강제로 병합하면서 한국여성들에게 강요한 것은 낡은 유교적 여성관에 입각한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이었다(윤정란, 2003, 23). 일제는 1912년 「교육칙어」를 배포하여 어린 한국여학생들에게 아버지며, 남편이며, 군주이며, 현인신(現人神)인 천황을 믿고 따르는 충량한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다(조선총독부관보, 2012; 윤정란, 2003, 24에서 재인용). 이러한 일제의 시민의식에 대하여 기독교 여학생들은 기독교 학교에서의 모임을 통해 공동체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면서 한국인의 바른 시민됨을 경험하였다. 민족과 여성문제를 심도 있게 인식하고 활동하면서 공동체적인 유대감을 형성하여 민족과 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단계로 발전하게 되었다(윤정란, 2003, 54-55).

황에스터와 어윤희도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에 맞서서 자주적인 여성, 민족 독립을 위해 헌신하는 여성이 되었다. 이는 당시 민족적인 상황과 개화 의식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교육의 장으로서, 교회와 기독교 여학교를 통해 배우고, 가르치고, 경험하고 실천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교회는 여성들을 교육하였으며, 여성들을 전도부인으로 파송하여 더 멀리 제자도를 전하며 독립의식을 갖게 하며, 교육을 하여 시민됨을 실천하게 하였다. 기독교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긍정하고 교회에서 전도와 교육을 하면서 자율적인 주체자가 되어, 다른 여성들을 제자로 부르며 그들로 각성하여 제자와 시민이 되도록 하였다.

기독교 여학교도 마찬가지이다. 기독교 여학교는 여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며, 독립의식을 고취하고 기도회와 예배,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주체자

로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는 여성들이 되게 하였다. 황에스터는 정진소학교, 송의여중, 이화여중, 이화여대의 기독교 학교에 다녔으며, 어윤희도 미리흙, 호수돈 여학교에서 공부하고 전도부인으로 활동하였다. 이러한 교회와 학교를 통해 이들은 초월자 하나님을 관상하고 경험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일을 더 잘 해내었던 것이다. 이들의 하나님 경험은 이들에게 잠재적인 힘을 주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었던 것이다(Underhill, 2004, 239-241). 교회와 학교는 여학생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을 뿐 아니라, 활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훈련하는 장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교회와 학교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적 지식, 새로운 지식을 배우며, 훈련할 수 있게 하며, 다른 이들을 가르치고 전도하며 제자로 부르는 제자됨과 시민됨을 이루어가는 장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신적 지식과 조명을 경험하면서 이를 훈련하고 경험하여 궁극적으로 제자됨과 시민됨을 동시에 이루어 나간 곳이 된 것이다.

### (3) 기도를 통한 존재의 변화

황에스터는 대한민국 애국부인회를 조직하였으나 회원의 밀고로 검거되어 이송되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자신이 민족을 위해 애쓴 것밖에 없는데 왜 이러한 시련을 주시는지 울며 기도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 '죄수를 위하여 봉사한다'는 소명을 주시며, 감옥이 '형벌의 장'이 아니라 '죄수 동포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장'이 되게 하셨다. 이에 황에스터는 자신의 오만과 교만을 뉘우치고, 그들이 감옥에서 나섰을 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쳤다. 황에스터는 기도하는 가운데 인식의 변화를 가지게 되었고, 자신의 그릇된 시각을 회개하고, 오히려 그곳에서 새로운 소명을 실천하였다. 소명은 현재의 구조 안에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이다(박상진, 2018, 309).

영성형성을 통해 존재의 변화를 이루는 것은 “자기부정”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 인간이 가진 한계성과 자기중심의 삶을 부정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향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양금희, 2004, 365-366).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에 대해 깨닫고 뉘우침으로 마음, 정서, 헌신 등의 내적 변화가 일어난다(이규민, 2001, 130). 기도를 통해 새로운 변화를 이루게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정체성을 형성하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신형섭, 2013, 324). 말씀을 통해 새로운 시각이 열려져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을 볼 수 있는 것이다(고원석, 2019, 265).

이러한 죽음의 위기에서 기도를 통하여 변화된 것은 어윤희도 마찬가지였다. 어윤희는 한일합방 이후, 기독교의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죽고 싶은 마음을 가졌었다. 나라가 없는 백성은 개만도 못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이제는 죽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어윤희를 변화시키시고, 민족 독립을 위해 헌신하게 하셨다. 황에스터와 어윤희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었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고 그것이 경험적인 앎이 되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았고 존재의 변화가 이뤄지게 되었다.

당시 일본 유학을 다녀왔던 근대 엘리트 여성 황에스터가 자신의 시민됨의 범주를 농촌까지 확장하고, 해방 이후 전제민 구호에 힘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시대적인 상황과 위기도 있었겠지만, 그녀의 제자됨이 신앙공동체를 넘어서고, 시민됨이 가난하고 소외된 주변인들에게까지 미쳤기에 그랬을 것이다. 어윤희도 기독교 신앙 안에서 각성하여 제자가 되었을 때, 그녀의 제자됨은 그녀를 시민사회, 공론장으로 이끌어서 한국 독립운동에 기여하고 전후사회 재건에 힘을 다하게 하였다. 이들은 위기의 순간에 기도에 힘을 다했고,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당시 개인적, 사회적 한계를 넘어서서 시민됨을 이루었다. 영성의 자기초월성은 제자됨과 시민됨의 한계를 확장시켰다. 근대 엘리트 여성 황에스터가 감옥에서의 위기를 통해 제자됨과 시민됨을 중심에서 주변으로 향하였다면, 어윤희는 기도하는 가운데 공론장으로 나아가며 시민됨을 이루었다.

### 3) 근대 여성 기독교인의 영성형성과 기독교교육적 함의

황에스터와 어윤희의 영성형성과정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기독교교육적 함의를 제공한다. 첫 번째, 제자됨과 시민됨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제자됨을 통해 시민됨을 더 잘 이루며, 시민됨을 통해 제자됨을 성취한다는 것이다. 황에스터와 어윤희가 민족적 위기 앞에서, 독립운동의 좌절 앞에서 다시 힘을 얻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제자됨의 실천으로 가능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였던 것이다. 하나님의 환상을 보며, 죄수들을 선도하였던 것이다. 일제의 박해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그곳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으며 자녀를 양육하며 고아를 돌보며 시민됨을 이루어갔다. 이러한 것은 바로 황에스터와 어윤희에게 제자됨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시민됨의 위기 앞에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존재’로서, 제자로서 기도해 힘을 다했고, 이로 얻은 확신으로 새롭게 시민됨을 실천하였다. 바로 민족적, 사회적 위기 앞에서 ‘제자’로 자각하며 제자됨을 실천할 때 시민됨을 더 잘 이룬 것이다.

현대 사회의 위기 앞에서 기독교인들은 다양한 사회적, 시민됨의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시민됨’의 위기에만 초점을 두기보다, 먼저 ‘제자됨’에 초점을 맞출 때 시민됨을 잘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위기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절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존재’로서 자각하며 다시 제자됨을 실천할 때 새로운 비전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시민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다. 기독교의 사사화,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지탄,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사회적 위축, 비대면으로 인한 신앙양육의 어려움 속에서 여성들이 다시 자각해야 하는 것은 ‘제자됨’이라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존재’로서 자각하고 기도할 때 그곳에서 새로운 비전을 바라보며 새로운 개념의 제자됨과 시민됨을 깨닫고 현재의 한계에서 초월하여 풍부함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여성들은 가정적, 사회적, 교회적 위기 앞에 먼저 ‘제자됨’을 이루며 그곳에서 소망을

바라보고 ‘시민됨’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교회와 학교는 여성이 ‘그리스도인의 존재’로서 시민됨을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근대 기독교 여학교는 성경을 가르칠 뿐 아니라 좋은 여성의 모델을 보여주고, 경험하게 하였으며, 민족독립의식을 고취하고, 기도회와 예배를 통해 민족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도록 하였다. 교회는 여성들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훈련하게 하였다. 전도부인으로 다른 여성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리더십을 발휘하며 훈련하는 장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근대 기독교 여학교와 교회에서의 훈련과 교육은 황에스터에게 송죽결사대 조직, 2·8 독립선언, 3·1운동,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농촌운동의 선구자, 여성단체총연맹조직, 국회의원 출마, 기술학교 설립을 하도록 일조하였을 것이다. 어윤희에게 전도부인, 개성만세운동 선도, 독립운동가 조력, 지방 순회전도사업, 남감리회 여성교회 전국연합회 부회장, 보육원 원장이 될 수 있도록 하였을 것이다. 시대적으로 가장 암울했던 근대 초기, 여성들은 교회와 기독교 여학교를 통해 그 삶의 영역이 확장되었다.

현대의 교회와 학교, 여성교육기관도 여성이 시대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훈련하는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교회, 학교, 기관에서 사회의 문제를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할 것이다. 여성이 그리스도인의 존재로서,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회, 학교, 기관에서 훈련의 기회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들이 여성공동체를 통해 멘토와 멘티를 형성하고, 바른 여성관을 확립하고, 시대를 바르게 이해하고, 헌신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훈련하여, 점차 공론장에서도 영향을 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여성들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며, 시민됨을 잘 수행하고, 공적인 자리에서 이 사회를 선도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 Ⅲ. 나가는 말

현시대는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분야에서 총체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우리는 4차 산업으로 인해 불투명한 미래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또한 여성들은 여전히 사회적 제약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많은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서 황에스터와 어유희의 영성은 우리에게 기독교교육적인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시대가 어두워도 ‘제자됨’을 확실하게 견지한다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새로운 비전을 발견한다는 것이다. 새롭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시민됨을 이루어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민됨으로 제자됨을 실천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러한 제자됨과 시민됨을 위한 여성영성교육이 요청된다. 이러한 여성기독교인의 영성형성과정을 통해 이 땅의 많은 여성 기독교인들이 참된 제자됨과 시민됨을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한다.

## 참 고 문 헌

- 3·1여성동지회 문화부 (1980). **한국여성독립운동사**. 서울: 3·1 여성 동지회.
- 고원석 (2019). **현대 기독교교육 방법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 김경일 외 4인 (2015). **한국 근대 여성 63인의 초상**. 서울: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 김도일 (2019). **가정, 교회, 마을 교육 공동체**. 서울: 도서출판 동연.
- 김인수 (2004). **한국 기독교회의 역사(상)**.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 김흥성 (1969). 어윤희 장로의 기념교육관. **새가정**, 173, 109-111.
- 김현숙 (2019). 근대 초기 기독교 여성과 기독교적 여성교육. **기독교교육논총**, 59, 17-58.
- 박상진 (2018). **기독교 교육과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 박용규 (2014). **평양 대부흥이야기**. 서울: 한국기독교사연구소.
- 박용욱 (1982). 한국근대여성운동사연구. 미출판 박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서울.
- 박용욱 (1996). **한국 여성 항일운동사 연구**. 서울: 지식산업사.
- 박용욱 (2001). **한국 여성 근대화의 역사적 맥락**. 서울: 지식산업사.
- 박용욱 (2009). **여성운동**. 천안 :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박정신 (1997). **근대 한국과 기독교 그 만남, 물림 그리고 엇물림의 사회사**. 서울: 민영사.
- 박찬일 (1963). **송의 60년사**. 서울: 송의여자중고등학교.
- 서정자(편) (2004). **박화성 문학전집-열매 익을 때까지, 새벽에 외치다**. 서울: 푸른사상.
- 송호근 (2013). **시민의 탄생: 조선의 근대와 공론장의 지각 변동**. 서울: 민음사.
- 송의100년사 편찬위원회 (2003). **송의 100년사, 1903-2003**. 서울: 학교법인 송의학원
- 신형섭 (2013). 제인 밴의 상징적 예배언어가 주는 기독교교육적 함의들. **기독교교육논총**, 36, 319-341.
- 양금희 (2004). 여성형성의 변형적 이미지를 통해서 본 기독교교육적 변형의 과제.

**장신논단**, 21, 355-376.

양금희 (2018).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기독교 통일교육**.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양미강 (1989). 일제하 한국 기독교 여성운동에 관한 연구: 1920-30년대를 중심으로.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오성춘 (1989). **영성과 목회-기독교 영성훈련의 이론과 실제-**.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유해룡 (2009). 영성과 영성신학, **장신논단**, 36, 303-331.

윤석준 (2015). 시민의 탄생: 조선의 근대화 공론장의 지각 변동. **사회과학논총**, 17, 113-125.

윤정란 (2003). **한국 기독교 여성운동의 역사: 1910년-1945년**. 서울: 국학자료원.

윤혜영 (1997). 기독교 여성 민족운동가 황애덕에 관한 연구-일제시대 활동을 중심으로-. 미출판 석사학위 논문. 감리교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이규민 (2001). 청소년기 회심과 자아정체성 형성의 상호역동성에 관한 연구. **종교연구**, 23, 117-148.

이덕주 (2013). **한국교회처음여성들**. 서울: 흥성사.

이순자 (2000). **떠난 자리가 아름다운 고아들의 어머니. 믿음, 그리고 겨레사랑**.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이장락 (2007). **민족대표 34인 석호필: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Frank W. Schofield)**. 서울: 바람.

이채욱 (1962). 어윤희 여사의 생애를 더듬어. **새가정**, 9(2), 52-55.

이화100년사편찬위원회 (1994a). **梨花百年史(1886-1986)**. 서울: 이화여자고등학교.

이화100년사편찬위원회 (1994b). **이화 100년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장병욱 (1979). **한국감리교 여성사, 1885-1945**. 서울: 성광문화사.

장신근 (2015). 하나님 나라와 지역교회의 교육: “공적 교육공동체 모델”을 중심으로. 장신근(편), **하나님 나라와 지역교회**. 143-192.

조은하 (2007). 사역회와 기독교 여성교육. **기독교교육논총**, 14, 189-220.

- 조은하 (2014). 최용신의 농촌 계몽운동에 대한 기독교교육적 고찰. **기독교교육논총**, 38, 147-171.
- 정상호 (2013). **시민의 탄생과 진화: 한국인들은 어떻게 시민이 되었나**. 춘천: 한림대학교출판부.
- 정운찬 (2004). 스코필드: 조선을 치유한 의사. 김승태 외 2인(편), **강한 자에는 호랑이처럼 약한 자에는 비둘기처럼**. 336-351.
- 주선애 (1978). **장로교 여성사**.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 주영수·중앙30년기념편찬위원회 (1971). **구원(久遠)의 햇빛**. 서울: 중앙여자중고등학교.
- 최윤배 (2015). 갈뎡의 경건으로서 영성. **제 3차 종교개혁기념학술강좌**, 1-23.
- 최은희 (1991a). **한국 근대여성사 (상)**. 서울: 조선일보사
- 최은희 (1991b). **한국 근대여성사 (중)**. 서울: 조선일보사
- 최은희 (1991c). **한국 근대여성사 (하)**. 서울: 조선일보사
- 최은희 (1991d). **한국 개화여성 열전**. 서울: 조선일보사
- 최은희 (1991e). **여성 전진 70년**. 서울: 조선일보사
-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여성사연구회 (1999). **한국교회 전도부인 자료집**.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0). **믿음, 그리고 겨레사랑**.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자료연구회 (2011). **기독교신보 사설 자료집**.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 황신덕 (1984). **황신덕선생유고집 무너지지 않는 집을**. 서울: 추계황신덕선생기념사업회.
- 황애덕 (1931). 대구여감의 0141호. **동광**. 27, 48-49.
- 황애덕 (1946). 3·1 운동과 여성의 활약. **신천지**, 1946년 1~3호, 142-148.
- 황애덕 (1972a). 황무지를 헤치며(유고집). **신여성**, 1972년 4월호, 188-191.
- 황애덕 (1972b). 황무지를 헤치며(유고집). **신여성**, 1972년 5월호, 183-185.
- 황애덕 (1972c). 황무지를 헤치며(유고집). **신여성**, 1972년 6월호, 192-195.
- 황애덕 (1972d). 황무지를 헤치며(유고집). **신여성**, 1972년 7월호, 208-213.

- 황애덕 (1972e). 황무지를 헤치며(유고집). **신여성**, 1972년 8월호, 194-197.
- Baird, W. M. (1907). The spirit among pyeng yang students. *The Korea Mission Field*, 5, 65-67.
- Coleman, J. A. (1999). 두 가지 교육: 제자직과 시민직. 김도일 역. **제자직과 시민직을 위한 교육**. 67-121.
- McGrath, A. E. (2006). **기독교 영성 베이직**. 김덕천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원저 1999 출판)
- Stokes, C. D. (2010). **미국감리교회의 한국역사 1885-1930**. 장지철, 김흥수 역.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원저 1947 출판)
- The korea mission field*. 영인본. (1905-1925). 1-25.
- Underhill, E. (2004). *Mysticism*. Oxford: Oneworld.
- Underhill, E. (2009). **신비주의의 본질**. 안소근 역. 서울: 누멘. (원저 1996 출판)
- Wilber, K. (2007). *Integral spirituality*. Boston& London: Integral Books.

---

Abstract

---

**A Study on the Spiritual Formation Process of Modern  
Christian Women :  
Focusing on Hwang Ester and Eo Yoon Hee**

Hee Young Kim

Visiting Professor,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This article studies the spiritual formation of modern Christian women in the cases of Hwang Ester and Eo Yoon-Hee. I take McGrath's definition of Christian spirituality as my starting point, namely, "Christian spirituality concerns the quest for a fulfilled and authentic Christian existence, involving the bringing together of the fundamental ideas of Christianity and the whole experience of living on the basis of and within the scope of the Christian faith." I center the terms of Christian existence and whole experience of living from McGrath's text, and understand Christian existence to relate to being a disciple and whole experience of living to relate to being a citizen. This study looks at the life history of Hwang Ester and Eo Yun-Hee, and looked at the spirituality of these women with the focus on discipleship and citizenship. Thus, I find that, for modern Christian women, becoming a disciple is inseparable from becoming a citizen. Also, I can see that, in modern women's spirituality, being a true disciple leads to becoming a right citizen.

《 **Keywords** 》

Modern women, Christian, Spirituality, Hwang Ester, Eo Yoon Hee

- 투고접수일 : 2020년 11월 30일
- 심사완료일 : 2020년 12월 26일
- 게재확정일 : 2020년 12월 26일